



안녕, 2018 ... 가자! 희망으로

27일 오후 광주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이 광산구 평동역을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2018년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결정하는 등 지역민의 '공동체 정신'이 빛나는 '호남의 역사'로 기록됐다. 광주일보는 2019년 새해, 모든 지역민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과 혁신 새로운 틀 마련해야

한전공대 부지·광주군공항 이전 등 사안마다 '밥그릇 싸움'
 광주전남연구원 논리 제공 ... 단체장 공감, 지역민 설득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광주와 전남도에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보수정권 10년간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광주와 전남이 정작 한전공대 부지 선정,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에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오랜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는 진지한 논의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는 빛가람혁신도시를 전남에 양보한만큼 앞으로 전남이 광주를 배려해야 한다는 속내인 반면 전남은 그동안 광주가 전남을 배경으로 해 호남 중추도시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는 전남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27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사·도 상생을 다짐한 뒤 5년이다 왔지만, 군 공항 이전, 한전공대 부지 선정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아직 사·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의 경우 사·도가 한국전력에 부지 선정 문제를 일임했음에도 물밑에서는 광주와 전남 기초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애초 한국전력이 위치한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에 한전공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광주 일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오는 2019년 1월 4일 한전공대(가칭) 설립과 관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광주시장, 전남지사, 한전사장 등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지만 부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 그 부작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문제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하

고 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2021년으로 못받는 등 적극적이지만, 전남도가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광주시는 군공항이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갈등 영향분석 용역'에도 착수하는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가고 있지만 정작 전남도는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 시종 2,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 조성,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등에 있어서도 광주와 전남의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통합한 지 3년이 넘어선 광주전

남연구원이 광주·전남의 갈등과 마찰 국면에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합 운영의 취지에 맞게 사·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원이 현안마다 이성적인 해결 방향성을 제시해 문제가 불거질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각 현안마다 무엇이 광주·전남을 위해 최선인지에 대한 공감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없다면니 막판에는 지역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연구원 이 논리를 제공하고, 단체장이 이에 공감하며 해당 지역을 설득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9년 첫 해돋이 무등산 7시 31분

2019년 새해에 떠오르는 첫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무등산 해돋이 시각은 7시 31분이다.

한국천문연구원 주요 지역 31일 해돋이 시각과 내년 1월 1일 해돋이 시각을 27일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첫 일출은 오전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관측할 수 있다. 광주에서 첫 해를 만나는 시각은 오전 7시 41분, 서울은 오전 7시 47분이다. 부산과 울산 오전 7시 32분, 대구 오전 7시 36분, 대전 오전 7시 42분, 세종 오전 7시 43분, 인천 오전 7시 48분 등이다.

일출시각은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고도가 높을수록 일출시각은 빨라진다.

오는 31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다. 오후 5시 40분까지 일몰을 볼 수 있다. 진도 세방낙조에서는 오후 5시 35분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일출과 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 생활천 문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연합뉴스

광주일보

연말 연시 TV 프로그램 ▶ 14·15면
 손흥민 또 2골 '놀라운 활약' ▶ 20면



광주시장·전남지사 송·신년 회견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시·도정 성과와 과제, 내년 운영방향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5면>

이 시장은 "10대 핵심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

"세계수영선수권 성공 대회 치르겠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하겠다"

주 시대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고 이

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도록 할 계획이다"며 "문화·체육 분야의 남북교류를 시작으로 의약품 등 낮은 단계부

터 기초를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해 역점시책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의 신성장저도 구상인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중심 성장축으로 남해안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산·경남도와 협력해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과 광주 군공항 이

전,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 광주·전남 상생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중앙정부의 입장도 설명하는 등 중재·주산·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으로 물 수밖에 없지만, 해당 지자체의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31일·2019년 1월 1일 신문 읽는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경황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흥동 876-17)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www.그린장례식장.com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